

대출규제 강화에 ‘여신’ 기피 부서로… 자금조달도 줄어

KB, 자금조달 수요 3천억 줄어

신DTI·DSR 등 대출규제 강화에 1인당 평균대출 4300만원 줄어

“꼭 막혔다. 금고에는 돈이 넘쳐 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자로 먹고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걱정이야.”(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여신업무는 은행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 모두가 걸려 있어 다른 부서에 비해 고민이 3배나 된다. 정부의 규제로 실적이 떨어지면 인사 고과가 나빠질 게 뻔해 걱정이야. 일은 눈덩이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와 검사에 응하느라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시중은행 여신부 팀장)

시중은행의 여신부가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 대출 규제

(시중은행 일괄신고 및 과거 발행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기간	일괄신고 규모	발행		
			'15년	'16년	'17년
국민	18.01.10~18.12.31	8,000	4,080	2,610	8,300
하나	18.01.03~18.12.31	8,000	4,650	5,490	7,900
신한	17.11.22~18.11.21	7,000	7,110	5,630	7,120
우리	17.06.12~18.06.11	6,000	4,770	5,190	8,390

※ 1월 4일 기준

/자료=전자공시시스템, NH투자증권

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채를 찍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시중 은행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줄이고 있다.

11일 시중은행들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8조원, 신한은행은 7조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신한

은행은 1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까지 6조원 발행 신고가 돼 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3조 7000억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신한은행(2015년)과 KB국민은행(2017년)과 하나은행(2017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발행계획 내에서 은행채 발행이 이뤄졌다”면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여건 확장 어려움, 최근 은행채 발행 확대 요인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은행채 발행은 일괄신고서상 계획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당장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6만 6000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그리고 신 DTI 도입에 따른 누적 효과를 추정해보니 이들의 34%가 영향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34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올해도 대출 수요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2로 4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수요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분기(-3) 이후 처음이다. 특히 1분기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전 분기 -17에서 -27로 떨어졌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수요는 주택 담

보대출의 경우 신DTI 도입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 일반 자금 대출도 대출금리 상승 탓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자리한다.

노골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신 DTI·DSR 등 신규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치)에서 올해 40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매입 목적의 은행채 발행도 축소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적예금 분류 요건 강화 전후로 은행들의 국공채 매입이 지속 확대됐다. LCR(유동성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하락에도 여전히 2019년 규제 수준(100%)을 상회하고 있어 고유동성자산 매입을 위한 은행채 발행 필요성은 낮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난 10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 바둥(Badung)시에 지점을 개설하고 개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번상모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이 개점 기념 타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휴양지 발리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오픈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지난 10일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 바둥(Badung)시에 발리지점을 개설하고 개점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발리섬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연간 방문객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 도시다.

발리지점은 기존 일부 은행 업무만 가능했던 사무소에서 모든 은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점으로 승격, 상업지역 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발리 전문을 접목한 점포 디자인으로 신규 개점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6년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을 인수·합병해 출범했으

며, 현재 총 60개의 점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지 직원을 통한 영업으로 현지화 영업에 성공해 거래고객의 93% 이상이 현지인이며 자산규모도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관계자는 “발리섬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방문하는 전세계 관광객의 소비 규모가 매우 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라며 “발리 지점을 통해 발리섬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신한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보험료 13% 낮춘 ‘실속든든 종신보험’

삼성생명, 16일 상품 출시

삼성생명은 오는 16일부터 기존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13% 내린 ‘실속든든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대신 납입 완료 후에는 환급금이 올라가도록 한 저(低)해지환급형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유고 시 필요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장 유고 시 남은 유가족을 보호한다는 종신보험의 본질에 더욱

가까운 상품이다.

상품은 가입 후 사망보험금이 변하지 않는 ‘기본형’과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 등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이 가운데 ‘체증형’은 사망보험금이 60세부터 매년 3%씩 20년간 늘어나는 형태로 사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예컨대 고객의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었다면 60세부터는 매년 3%인 300만원씩 늘어나 80세 시점에는 1억6000만원이 된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종신보험은 주보험 가입금액 1억원 이상 고객에 대해서만 장기 유지 보너스를 부여했지만 상품은 이 같은 제한을 없앴다. /이봉준 기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4063억원 소각

저축은행중앙회, 4만854명 대상 채권소각 시스템 주기적 운영키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업계가 금융 취약계층 재복지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 4만854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4063억원)을 소각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목별로 개인은 3만4395명(2495억원), 자영업자는 6459업체(1568억원) 규모다.

이번 채권 소각은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서민·자영업자 등이 장기간 채무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재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명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계

조치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채무자 스스로 채무 일부를 갚을 경우 시효가 부활해 채권 추심이 재개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설

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1분기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 소각 여부는 거래자가 직접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B국민카드, 직제 개편… 혁신 수행 상설부서 신설

창의·역동적 실행조직 구축 등 3대 핵심과제 달성에 초점 맞춰

KB국민카드는 11일 본격적인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이동철 KB국민카드 신입 사장이 최근 취임사에서 밝힌 ‘창의적·역동적 실행 조직 구축’,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본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시대 KB금융그룹의 성장에 선도적 역할 수행’ 등 3대 핵심 과제의 효과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KB국민카드는 전사적 혁신과제를 수행할 별도 상설 조직 ‘애자일(Agile)’을 신설하고 본부 내 인력과 자원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본부주도 자율 조직제를 도입했다.

‘스웨그(SWAG; Smart Working Agile Group)’라고 명명된 ‘애자일’ 조직은 독립된 의사 결정권과 전결권을 부여받아 새로운 기업 문화 구축을 포함한 ‘역량 파괴적 혁신 과제’,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RPA) 확대 등 기존 영역의 혁신과제, 대고객 마케팅 체계의 전환과 같은 전사적 엔드투엔드(End-to-End) 실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행 과제 등 총 3개 영역에 걸쳐 조직 혁신과 시스템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본부주도 자율 조직제를 선보였다. 담당 본부의 조직을 본부장이 필요 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현안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직을 기민하게 재설계하고 가용 자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을 위해 해외 진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글로벌사업부를 확대 개편하고 프로세싱대행 사업을 수행할 PA추진부를 신설했다. 해외 시장 창출을 담당하는 글로벌사업부의 경우 라오스·미얀마 등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A추진부에서는 카카오펙 체크카드 업무대행 등 기존 프로세싱대행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대행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외 KB금융그룹 내 데이터 시너지 극대화 및 빅데이터 역량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전략본부도 신설됐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본부 조직은 기존 10본부 38부 3센터에서 11본부 39부 1애자일조직 3센터로 조정됐다. 영업점은 기존과 같이 25개 지점 체제가 유지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조직과 기업문화를 만들고 카드 비즈니스 수익성 감소 등 경영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